



특검팀 본격 활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왼쪽부터)와 이규철, 양재식, 이용복, 박종근 특검보가 11일 회의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뇌물죄 입증·김기춘 직권남용 집중

최순실 의료농단·차용병원 특혜 의혹 규명

최씨 일가 은닉재산·추가 문건 유출 조사

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 국정농단을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1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얼마나 명쾌하게 파헤칠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의료농단=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첫 서면 보고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까지 약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당시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

처방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순실 의료 농단 의혹은 대통령 대리처방, 비선 진료, 최 씨와 가까운 몇몇 의료인의 특혜, 세월호 7시간 등에 그치지 않는다. 차용병원을 거느린 차병원그룹이 박 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기업 출연 뇌물죄= 검찰 수사로 '비선 실세' 최씨가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가운데 774억원의 막대한 돈을 걷은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라는 점이 사실상 확인됐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에 제3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증거에 비춰볼 때 뇌물죄 적용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사불

란하게 거액의 출연금을 낸 행위는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모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따라서 박 특검이 이를 얼마나 밝혀내는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관건이다.

◇'김기춘·우병우 비위=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진상을 규명할 책임은 특검으로 넘어왔다.

◇최씨 일가 부정축재=최태민씨 일가의 부정부패와 재산은닉 의혹도 특검 규명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막대한 재산의 출발점에는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가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최태민씨가 당시 영예였던 박근혜 대

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1970년대 새마을봉사단 등을 조직해 기업들에 돈을 뜯고, 1980년대에는 육영재단 운영에 관여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 대통령의 뒤를 덮임없이 따라 다녀 국민적 의혹이 크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관련 비리도 특검이 명쾌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다.

◇문서유출 어디까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일단 확인됐다.

특검은 검찰이 이미 확인한 것 외에 다른 기밀이나 정부 중요 문건이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될지도 관심이 있다.

검찰은 청와대 문서를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유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만약 특검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면 그 역시 범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정조준

청문회, 주치의·경호실장·미용실 원장 등 증인 채택

이번주 국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청문회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에서 계획된 국정조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번 주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지난주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본격수사와 발맞춰 국조특위는 핵심의혹의 열쇠를 풀 '결정적 한방'을 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창석(현 서울대병원 원장)·이병석(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주·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4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은희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방문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증언할 구순성 경찰관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승주 미용실 원장이 참석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차용병원과 김영재의원도 찾는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원영 의원과 이만희·정유섭·최교일 의원 등 여당내 진박·주류의원들이 국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한 데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정조사의 의미가 이미 퇴색했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국조특위는 12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안종범 등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과 삼성 장총기 사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국조 활동의 여전한 한계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11일 "최순실·안종범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보사태 때도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말 잇은 특검...첫 수뇌부 회의

100명 규모 매머드급 진용...대통령 대면조사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특검팀 수뇌부 회의를 열어 수사준비를 진두지휘했다.

박 특검은 주말인 이날에도 아침 일찍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변호동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했다.

특검을 보좌하는 박종근(60·연수원 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도 강남 사무실에 나

와 박 특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부터 넘겨받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자료 검토작업을 포함한 수사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는 지난 8일부터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등이 급변한 것을 의식한

듯 특검팀의 움직임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박 특검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론의 관심이 특검 수사에 더욱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가 됨에 따라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팀은 수사 준비작업을 착각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파견검사 추가 요청을 승인해 특검팀은 수사에 나설 검사 진용을 완벽하게 됐다.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12일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사팀장인 윤석열 대검총장 겸 사를 비롯한 1차 파견검사 10명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자료 검토작업에 투입된다.

검사들의 지휘에 따라 각종 수사와 지원을 맡을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인선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각각 40명 규모인 이들의 인선이 끝나면 약 100명 규모의 매머드급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다. /연합뉴스

특수통 집중 투입...추가혐의 밝힐까

특검 파견검사 살펴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냈다.

이번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4명을 포함해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추가 파견검사 명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2차 파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4·31기) 부부장검사와 이지형(40·33기)·최재순(38·37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44·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43·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43·33)·김해경(42·34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43·34기)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41·35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41·37기)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김태은 부부장과 최재순·

배문기·강백신 검사 등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김 부부장과 배 검사는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을, 최재순·강백신 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자금 출연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거친 이지형 검사와 최순호·이방현·호승진 검사도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에 멤버다. 김해경 검사는 수사 기획쪽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검사 20명의 면면을 보면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특수본 소속이 7명으로 전체 3분의 1의 비중을 보인다. 기존 특수본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죄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h3>상가 매매 6층</h3> <p>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p> <p>50평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p> <p>★ 차세 1억6천만 매가 1억1천만</p> <p>※(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 (용 5천)</p> <p>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p> <p>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p>	<h3>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h3> <p>북구 오동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p> <p>(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p> <p>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p> <p>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p> <p>★ 감정가 55억 매가 38억</p> <p>(※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p>	<h3>상무지구 6층 오피스텔 매매</h3> <p>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p> <p>23평 (투룸 형) 상무지구 중심가 / 리모델리 완비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만(용 4천)</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p> <p>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0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3천만</p> <p>서구 쌍촌동 인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윤천역 변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임으로 내걸어)</p> <p>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p> <p>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p> <p>전남 광양 광명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목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p> <p>서울 용산 청라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p>	<h3>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h3> <p>경매 추천 물건</p> <p>전남 영광 시종면(3층 상가주택) 토 209평 건 304평 1층 (식당) 2층~3층 (원룸 2개) 4차선 도로 접 (임대각정없음) 임대각정 없음 / 건물 상태 양호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3억2천</p> <p>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이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p> <p>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7,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p> <p>상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p> <p>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p> <p>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접 / 넓은 평수 / 광고 최고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p>
---	--	---	---

010-7384-7800

010-6670-9800